

#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 검증

유영주<sup>1</sup>, 박지선<sup>2\*</sup>

<sup>1</sup>유원(U1)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up>2</sup>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초빙교수

## A Study on the Structure Model of Social Welfar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Social-cognitive Career Theory

Young-Ju Yu<sup>1</sup>, Ji-Sun Park<sup>2\*</sup>

<sup>1</sup>U1 University

<sup>2</sup>Woos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전공 특성에 부합한 적절한 진로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Lent 등(1994)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조사대상은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경험한 3개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132명으로, 인지적 요인(결과기대), 흥미 요인(전공선택만족), 목표요인(진로결정수준), 수행요인(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SPSS 24.0과 AMOS 24.0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FI=.904, TLI=.887, RMSEA=.068로 통계학적으로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둘째, 주요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전공선택만족이 높아지고, 이는 진로결정수준을 증가시켜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해서 학생 개인의 인지적 요인 및 흥미요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결과기대, 전공선택만족,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Abstract** 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for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ocial welfare major students based on Lent et al. (1994)'s Social-cognitive Career Theory so as to provide essential baseline data for establishing proper career support strategies that suit the distinctive nature of social welfare studi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132 social welfare major students from three colleges who have completed social welfare field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actor (outcome expectation), vocational interest factor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goal factor (career decision level), and work performance fact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analysis, SPSS 24.0 and AMOS 24.0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l's goodness of fit was found to be at a statistically ideal level with CFI=.904, TLI=.887, and RMSEA=.068. Secon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imary variables is as follows: as outcome expectation increased,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grew, which then increased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led to the improvement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customized route support program considering the perceived and interesting factors of individual students to improve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social welfare majors.

**Key Words** : Social-cognitive Career Theory, Outcome expectancy,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Social Welfare,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Ji-Sun Park(lundy@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9,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29,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 1. 서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krivnet.re.kr)의 ‘한국직업지표연구’ 중 10년 후 전망 좋은 상위 20개 직업 선정에서 사회복지사는 5위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일자리 수요가 가장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이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대신하지 못할 직업군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휴먼서비스 분야가 꼽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러한 전망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포털서비스 ‘복지넷’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welfare.net)의 통계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복지넷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직업은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요양보호사 등 66개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이후에는 매년 7만 5천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양성되었다. 그리하여 2017년 10월말까지 총 93만 2천여 명이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회복지분야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에서도 앞으로 사회복지관련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2017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복지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계속해서 관련 일자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분석해 볼 때 사회복지사 관련 직업군의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전문 인력 공급에서도 수요 초과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2,3]. 반면, 한국고용정보원(keis.or.kr)의 2014년 5월호 고용동향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 2004년 20.8개월에서 2013년 18.4개월로 2.4개월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통계청(kostat.go.kr)의 인력실태조사에서는 산업분야 전체 평균 근속기간이 8.6년인데 비해 사회복지분야 평균 근속기간은 3.2년으로 매우 짧게 나타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진입가능성을 높

이고자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한 전공지식과 훈련, 자격을 갖추고 현장과의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ACE사업 등을 통해 현장에 취업하기 전 진로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노력보다는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학과와 같은 이념과 가치가 중요시되는 실천학문에서는 전문직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행동이야말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자세일 것이다.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이나 이에 따른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진로성숙도[4,5], 자기효능감[6-8],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슈퍼비전 만족도[9] 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적성, 가치관, 흥미, 성격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치중하였다[10,11]. 최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으며[12-14], 특히 고등학교 청소년이 아닌 대학의 학과별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15].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사회복지 실천 경험이 사회복지를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는 수준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진로발달이론 중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고 평가받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16].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진로발달에서의 흥미(interests), 목표(goals), 그리고 수행(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보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적 틀로 판단하였다.

Lent 등(2003)[17]은 진로관련 행동을 설명하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통해 개인 사회적 요인(성별, 인종, 성격, 사회적 지지정도 등)과 인지적 요인 및 행동적 요인(학습 경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적 흥미 등)이 진로발달에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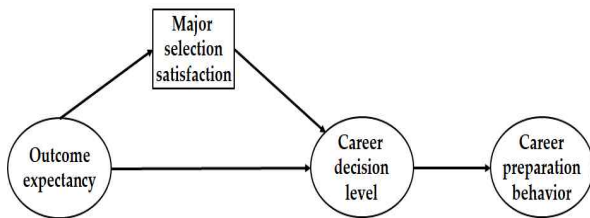
본 연구는 Lent 등(1994)[18]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하여, 실습을 경험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지적 요인인 ‘결과기대’, 흥미요인인 ‘전공선택만족’이 목표요

인인 ‘진로결정수준’ 및 수행요인인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탐색해 봄으로써 향후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Lent 등(1994)[18]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결과기대, 전공선택만족,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 2.2 조사대상

연구대상은 현장실습을 마친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서울, 경기, 대전에 소재한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3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앞서 본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설문목적에 대한 설명 및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약속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해 설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 2.3 측정도구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과기대, 전공선택만족,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변수와 일반적 특성(성별, 실습기관 운영형태, 실습기관종류, 실습횟수)으로 측정하였다.

#### 2.3.1 결과기대

결과기대는 Pakieser-Reed(2006)[19]이 개발한 간호실천 결과기대 척도를 김유경(2012)[16]이 재구성하고 문항을 추가한 것으로 사회복지실천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결과기대’를 의

미한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할 수 없다(0점)부터 잘 할 수 있다(10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 2.3.2 전공선택만족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 정도를 확인하고자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2.3.3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외(1976)[20]가 개발하고, 고향자(1992)[21]가 번역한 진로결정검사 문항 중 7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들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과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2.3.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22]이 개발한 도구로 자신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과 관련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8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4.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살펴보았다. 타당성 검증에는 요인구조 측면에서 본 구성개념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모형적합도가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모형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수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내적정합성 측면에서 신뢰성을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로 산출했다. 셋째, 변수 간 상관관계 확인 후 결과기대, 전공선택만족,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을

검증했다. 통제변수로는 성별을 투입했다. 추정법은 ML 방법을 채용하였고,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표인 CFI, TLI, RMSEA 값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이면 데이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23]. 분석모형의 표준화 계수(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비표준화계수에서 표준오차를 뺀 값(이하 t값)의 절대값이 1.96 이상(5% 유의수준)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24].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78명(66.7%)으로 남성 39명(33.3%)보다 2배 많았다. 실습기관 운영형태는 이용 시설이 100명(85.5%), 생활시설이 17명(14.5%)으로 이용 시설에서의 실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습기관의 종류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동대상 복지기관이 각각 31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대상 복지기관 18명(15.4%), 장애인대상 복지기관 11명(9.4%), 청소년대상 복지기관 9명(7.7%), 연합회/협회/재단 5명(4.3%),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기관(병원) 3명(2.6%), 정책/연구기관 1명(0.9%), 기타 8명(6.8%)이었다. 사회복지 실습시기는 방학 중 실습이 110명(94.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3.2 주요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주요변수 중 결과기대,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1요인모형으로 가정한 결과기대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형 수정을 거쳐 적합도 지수(CFI=1.000, TLI=1.024, RMSEA=.000)가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는 .874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1요인모형으로 가정한 진로결정수준의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모형 수정을 거쳐 적합도 지수(CFI=.982, TLI=.971, RMSEA=.062)가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는 .867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1요인모형으로 가정한 진로준비행동의 타당도 검증 결과, 모형 수정을 거쳐 적합도 지수

(CFI=.962, TLI=.944, RMSEA=.072)가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는 .831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 3.3 측정척도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결과기대는 전공선택만족( $r=.255, p<.01$ ), 진로결정수준( $r=.186, p<.05$ ) 및 진로준비행동( $r=.243, p<.01$ )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공선택만족은 진로결정수준( $r=.501, p<.01$ ) 및 진로준비행동( $r=.199, p<.05$ )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 $r=.252, p<.01$ )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1	1				
2	-.078	1			
3	-.027	.255**	1		
4	-.087	.186*	.501**	1	
5	.052	.243**	.199*	.252**	1

주1) 1. gender, 2. Outcome expectancy, 3.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4. Career Decision Level, 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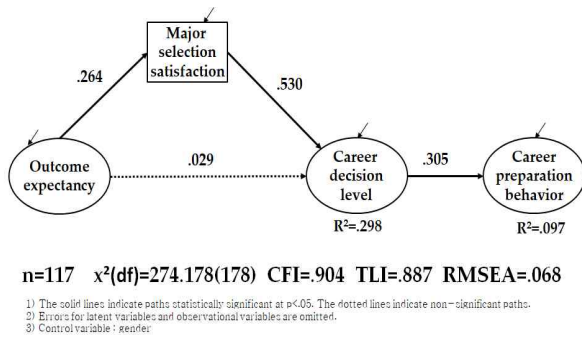
주2) \*\* $p<.01$ , \* $p<.05$

#### 3.4 연구모형 분석 결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초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결과기대, 전공선택만족,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FI=.904, TLI=.887, RMSEA=.068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결과기대에서 전공선택만족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264, 전공선택만족에서 진로결정수준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530, 진로결정수준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30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그러나 결과기대에서 진로결정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29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ig. 2] Results of research model (standardization coefficient)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Lent 등(1994)[18]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초로 실습을 경험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경험(학습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종합적인 매커니즘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결과기대(인지적요인)→전공선택만족(흥미요인)→진로결정수준(목표요인)→진로준비행동(수행요인)의 인과관계를 가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결과기대(인지적요인)→진로결정수준(목표요인)에 대한 직접경로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에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모형 구축에 기반이 되는 Lent 등(1994)[18]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증적인 인과관계연구는 보통 이론에서 도출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가설 구축(변수 간 관련성 설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원인을 검증하고자 진로영역의 대표이론인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활용하였고,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가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선택행동에 대한 매커니즘을 포괄적인 원인들로서 구조화시키고 있다. 개인의 진로선택행동에 대한 원인변수들의 중요성, 즉 개인심리적 요인, 맥락적, 사회환경적 요인을 비롯하여 인지적 요인 및 흥미요인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25,26,27]. 그러나 기

존 연구들은 종합적인 구조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최대 두 변수 정도만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접근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수행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복수의 요인으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경험이라는 학습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지적 요인, 흥미요인, 목표요인을 투입하여 보다 포괄적인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의 각 원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론적 측면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이라는 기본 가정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해 개인의 인지, 흥미, 목표설정 등 복합적인 차원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변수 간 관련성에 있어서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전공선택만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결과기대는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과기대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 특정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관련행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역량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계속 행동을 시도한다고 가정한다[18]. 다시 말해 스스로 진로결정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은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낙관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의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대학생 스스로 미래에 대해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졸업 후의 삶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상에서 긍정적 정서감을 높일 수 있는 연습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학생별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진로에 대한 신념이나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는 학생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지표 등을 만들어 기준점수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 전략을 차별화하여 학생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28,29]에서는 결과기대의 예측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즉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습과정 외에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이 상호교류하면서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해 갈 수 있는 지원 등을 추진, 진로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결과기대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한 긍정적 정서 [30]를 비롯하여 진로결과기대[31]와 같은 인지적 요인이 진로만족감을 높이거나 진로결정수준에 중요한 영향요인 또는 매개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기대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관련성을 직접적인 경로 뿐만 아니라 전공선택만족이라는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간접적 경로에 대해 확인했고, 그 결과 결과기대의 간접경로인 전공선택만족을 통한 진로결정수준으로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결과기대가 진로결정수준보다 전공선택만족에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결과기대가 높아지면 전공선택만족이 높아져 진로준비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결과기대라는 인지적 요인과 전공선택만족이라는 흥미요인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결과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후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 과정에서 실습을 경험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인지적 요인, 흥미요인, 목표요인이 수행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영향변인에 대해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실증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실천적 방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구조적 관계를 기반으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한다면 이들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전공에 대한 만족감, 진로결정 수준 및 나아가 진로준비행동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정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연구대상을 확장시킨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개인심리적 요인(자아효능감 등) 및 사회환경적 영향(사회적 지지 등) 등과 같이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진로준비행동의 총체적인 발생 매커니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위한 진로준비행동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Kim, N. Y., "Revision and Validation of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Scale for Care Service Providers Working at Human Service Organizations : Focusing on Care Workers for the Elderly", *Dongguk University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4, No. 2, pp. 379-397, 2017.
- [2] Lee, K. Y., & Choi, M. M.,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Social Work Profession of Korea: Challenges and Task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2, No. 1, pp. 1-52, 2006.
- [3] Kim, S. Y., & Huh, S., "Research on Employment Stress and Countermeasures of the Graduates-to-be Who Majored In Social Work",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9, pp. 23-51, 2009.
- [4] Choi, S. R.,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Maturity", Daegu University, 2017.
- [5] Yu, E. Y., & Yang, Y. J.,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nd the Influence on Career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2, pp. 557-568, 2013.
- [6] Heo, S. C.,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ling Program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Female Colleg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10, pp. 227-236, 2012.
- [7] Hackett, G., & Bets, N. E.,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8, No. 5, pp. 399-410, 1981.
- [8] Jung, K. H., & Sung, C. S.,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dividual Environmental

- Factor and Individual Trait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6, pp. 179-198, 2017.
- [9] Kang, J. S., "Effect of Supervision Characteristics of Social Work Practicum on th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12, pp. 212-222, 2012.
- [10] Brown, D., "The role of work and cultural values in occupational choice, satisfaction, and success," *J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80, pp. 48-56, 2002.
- [11] Russell, J. E. A., "Vocational Psychology: an analysi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J of Vocational Behavior*, Vol. 59, pp. 226-234, 2001.
- [12] Au, Y. K.,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kill on a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4, No. 4, pp. 1029-1046, 2010.
- [13] R. D. Duffy and B. J. Dik, "Beyond the self: External influences in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58, pp. 29-43, 2009.
- [14] Park, D. S., "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their Departments of Health College Students and the Types for Career Decision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415-423, 2014.
- [15] Jeong, J. H., Won, M. S., & Lee, S. J.,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7, pp. 228-237, 2013.
- [16] Kim, Y. K., "The Impact of Social Work Learning Experiences on the Choice of Social Work a Caree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17]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0, No. 4, pp. 458-465, 2003.
- [18]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5, No. 1, pp. 79-122, 1994.
- [19] Pakieser-Reed, K., "Nursing Practice self-efficacy and nursing practice outcome expectation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2006.
- [20] Osipow, S. H., Camey, C. G., & Barak, A., "A scale of education-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9, pp. 233-243, 1976.
- [21] Koh, H. J.,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2.
- [22] Kim, B. W., & Kim, K. 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Vol. 9, No. 1, pp. 311-333, 1997.
- [23] Yamamoto K. & Onodera T.,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and analysis case by Amos", *Kyoto: Nakanishiya Publication*, 2002.
- [24] Peek M. K.,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Vol. 79, No. 3, pp. 301-309, 2000.
- [25] Kim, E. Y.,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relatedness and career decision competence on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3, No. 1, pp. 79-96, 2010
- [26] Lee, Y. 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of university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2001.
- [27] Choi, S. W., "Influential Factors on College Women's Career Aspi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2.
- [28] Jung, M. Y., & Cho, N. K., "A Structural Model of Career Satisfaction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0, pp. 295-316, 2001.
- [29] Gushue, G. V., & Whitson, M. L., "The relationship among support, ethnic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applying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33, No. 2, pp. 112-124, 2006.
- [30] Joo, Y. J., Go, K. Y., & Jung Y. J., "The Effects of Positive Affect,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Caree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8, No. 3, pp. 65-83, 2015.
- [31] Kim, S. M., & Lee, H. R. "A Structural Analysis of Anticipated Self-Efficacy, Career Outcome Expectancie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3, pp. 27-48, 2008.



유 영 주(Yu, Young Ju)

[정회원]



- 2008년 8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유원(U1)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 문화복지

▪ E-Mail : bona16@hanmail.net

박 지 선(Park, Ji Sun)

[정회원]



- 2009년 3월 :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 대학원 (보건복지학 석사)
- 2012년 3월 :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 대학원 (보건복지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초빙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다문화

▪ E-Mail : lundy@hanmail.net